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전략 유형과 인식 조사*

김 혜 연**

— < 次 例 > —

- I. 서론
- II. 선행 연구 검토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및 논의
- V. 결론

I. 서론

플라워(Flower, 1985, 원진숙 외 역, 1998)가 ‘문제해결전략’을 글쓰기의 가장 효과적인 쓰기 전략으로 소개한 이래로, 쓰기 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더 나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나타났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인지적 관점의 작문교육 이론들 및 전략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거나 도리어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들(North, 1987; Smit, 2004; Pritchard & Honeycutt, 2006)도 다수 등장하였다. 사실, 과정 중심 작문교육의 관점이 도리어 과정 자체를 파편화하여 인위적인 기능 단위로 분절하였다는 비판을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그런 면에서,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 이 논문은 2015년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돕기 위한 전략들보다도 학생과 학생 간,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미협상의 과정에 초점을 두는 전략들이 더욱 적절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정 중심 작문교육’의 교육적 실천에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인지적 관점 자체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것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이재승(2007, 2010)과 정희모(2013)에서 주장하였듯이, 글쓰기에서 개인의 인지적 사고 과정이 차지하는 중요도를 고려할 때 인지적 관점은 사회적 관점과 더불어 여전히 작문교육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략 중심의 작문교육 실천은 인지적 혹은 사회적 관점 여하를 막론하고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플라워가 문제해결전략을 제안하였던 것도 인지적 차원의 기능들을 익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과정’을 분절하지 않은 채 효율적이면서도 총체적으로 적용 가능한 방법을 고안하기 위해서였다.¹⁾ 그러므로 문제는 인지적 관점에 의거한 전략들이 어떠한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욱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어떻게 개발해 내느냐에 달려 있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이러한 전략 중심의 작문교육 실천을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서, 대학생 필자들이 쓰기 과정 운용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들을 활용하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전략 활용과 그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진단하고자 하는 데 있다. 특히 학생들이 글쓰기 전략의 다양성이나 개인 스타일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는 대신, 일률적이고 보편적인 판단 기준에 의거하여 전략을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즉, 어떤 것이 바람직하거나 올바른 글쓰기 전략인가에 대해 지나치게 편

1) 플라워가 전략 중심 작문교육을 주장하게 된 배경은 오히려 작문 과정의 인지적이면서도 사회적 속성을 통합적으로 반영하고, 실제 수행에 총체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협하게 판단한다거나, 본인의 스타일과 맞지 않는 방식을 사용할 경우, 전략은 오히려 효율적 쓰기 과정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학생 필자들이 현재 어떠한 글쓰기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일은, 글쓰기 전략의 다양화·효율화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전략은 어떻게 유형화할 수 있는가?
- 둘째, 성별, 쓰기 빈도, 쓰기 선호도 등의 요인들은 대학생 필자의 전략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본문 진행, 퇴고의 양상과 대학생 필자의 전략 유형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넷째, 대학생 필자의 쓰기 교육 경험과 쓰기 지식은 유형의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상의 연구 문제들을 바탕으로, 대학생 필자들의 쓰기 과정을 유형화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필자들의 인식을 알아봄으로써 쓰기 전략 운용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비록 본 연구만으로 작문 지도 전략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기는 어렵겠지만, 학습자의 쓰기 과정 운용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일은 실질적인 글쓰기 전략 및 지도 방안을 마련하는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II. 선행 연구 검토

그동안 필자들을 유형화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물론,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을 다루고자 한 연구들도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내 연구들 중에서 필자의 인지적 속성이나 필자의 자기 인식을 다루고자 한 연구들로는, 김정자(2012), 김지연(2013), 박수자(2007), 양경희·이삼형(2011), 정현선(2013), 정희모(2011), 정희모·김성희(2008)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교사의 필자 정체성 문제(김정자, 2012), 인터넷 글쓰기의 필자 인식 문제(김지연, 2013; 정현선, 2013), 생애주기의 쓰기교육 관점에서 본 생애 필자의 관점(박수자, 2007) 등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생 필자의 쓰기 과정 인식을 전면적으로 다룬 연구들은 그나마 더욱 드물었던 셈이다. 양경희·이삼형(2011)에서는 필자의 자기 인식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는 있지만, 인지적 차원의 유형화와는 다소 거리가 멀다. 정희모(2011)에서는 학생 필자와 전문 필자의 차이, 정희모·김성희(2008)에서는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의 차이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생 필자 유형화 연구의 기반이 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 본격적인 유형화 연구라 할 수는 없다.

국외에서도 인지적 관점에서 학생 필자의 쓰기 과정을 유형화하고 그로부터 교육적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지는 않았으나, 몇몇 의미 있는 시도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베레이터와 스카다말리아(Bereiter & Scardamalia, 1987)의 경우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의 쓰기 전략 운용 방식의 차이를 바탕으로 교육적 적용 전략들을 이끌어내었다. 미숙한 필자와 능숙한 필자의 구분은 질적 차이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유형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형화를 위한 간접적인 기반이 된다고는 볼 수 있다. 한편, 헤이즈와 내쉬(Hates & Nash, 1996), 토랜스 외(Torrance et al., 1996), 반 데어 호벤(van der Hoeven, 1999), 반 덴 베르흐와 레일라르스담(van den Bergh & Rijlaarsdam, 2007), 미힐(Myhill, 2009) 등

은 사전 계획하기 활동 혹은 내용 생성하기 활동과 관련하여 필자들의 인지 활동들을 유형화함으로써 구체적인 교육의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유형화 양상은 필자들이 쓰기 과정 중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양상들을 제시하였을 뿐, 필자들이 어떠한 유형을 더욱 선호하는지, 그리고 해당 유형들이 실제로 사전 계획에서 본문 생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용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못하였다.

이에 비해, 토랜스 외(Torrance et al., 1999), 화이트와 브루닝(White & Bruning, 2005), 키프트 외(Kieft et al., 2007) 등은 본격적으로 필자의 쓰기 과정 유형화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먼저, 화이트와 브루닝(White & Bruning, 2005)은 필자들의 선택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쓰기 신념’(writing beliefs)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필자들은 대체로 전달적(transmissional) 신념을 지닌 필자와 상호작용적(transactional) 신념을 지닌 필자로 나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신념의 차이가 쓰기 수행 및 질의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

필자들의 전략의 차이가 질의 차이와 관련 있다고 보았던 화이트와 브루닝과 달리, 토랜스 외(Torrance et al., 1999)에서는 질의 차이를 수반하지 않음으로써 더욱 다양한 전략 수행의 가능성을 암시하였다. 이들은 대학생 필자들이 계획하기와 본문 생산에 할애하는 시간의 비중 차이에 따라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쓰기 과정 전략은 필자 고유의 대처 전략으로서 일관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키프트 외(Kieft et al., 2007)는 학생 필자들 사이의 인지적 전략의 차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쓰기 지도의 방식 역시 이러한 전략의 차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

장하였다. 필자 간 차이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기존 연구들이 대체로 그러한 차이를 미숙함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차이가 있다는 점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 끝난 것에 비해, 이들 연구는 이러한 차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하였다는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 역시 필자들의 글쓰기 전략 유형을 밝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유형들을 선택 가능한 다양성의 관점으로 파악하고 각 유형별로 적절한 교육적 처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교육적 처치의 전제 조건으로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유형화 시도들이 대체로 계획하기 활동의 양상에만 주목하였다는 점도 한계가 될 수 있다. 즉, 계획하기 활동 및 그 결과는 단지 계획하기 자체만이 아니라, 실제 본문 생산 과정과 퇴고의 과정에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계획하기, 본문 생산, 그리고 퇴고하기의 양상들이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때 더욱 실질적인 교육적 처방이 가능할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선정

연구의 방법으로는, 설문조사에 대한 통계 분석과, 인터뷰 조사 및 설문조사에 대한 질적 자료 분석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질적 양적 혼합 연구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대학생 필자들의 글쓰기 전략

유형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근본적으로 양적 접근이 필요하겠으나,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을 제한적인 질문만으로 파악하는 것은 오류를 범할 위험이 있기에 질적 접근도 함께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른 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우선, 계획하기 방식과 관련하여 25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자의 편견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두 서술형 기입식의 질문지 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각 참여자들의 쓰기 과정 녹화 영상을 관찰함으로써 조사 내용을 확인·보강하였다. 그리하여 사전 조사의 예비적 질적 자료 분석을 수행한 결과, 개요 유형, 메모 유형, 바로 시작 유형의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었다.²⁾ 개요 유형은 전체 글의 내용에 대한 구조적 축약을 본문 생산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메모 유형은 본문 생산 이전에 미리 사전 계획하기(preplanning) 활동을 통해 내용을 생성하기는 하나, 그것이 전체 글에 대한 구조적 축약의 형태는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바로 시작 유형은 특별한 사전 계획하기 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문 생산을 시작하는 유형을 의미한다. 사전 계획하기의 과정은 필자 스스로 쓰기 과정을 주도하는 가장 큰 힘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기에(Hayes & Nash, 1996: 31-34), 계획하기의 방식이 쓰기 과정 유형화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본 조사에 활용된 설문지는 이러한 세 유형의 구별을 전제로 하여 제작되었다. 몇몇 문항들은 해당 정도를 판별하는 리커

2) 보통, 엄정한 설문 조사 과정을 거치기 위하여 설문 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 분석 및 신뢰도 분석이 실시되기도 하나,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질적 분석이 필요한 항목들이 많아서 이 과정을 사전 조사의 질적 자료 분석으로 대체하였다.

트 척도를 사용하였으나, 또 다른 문항들은 사전 조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사례들을 나열하고 선택하게 하거나 자유기입형으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설계는 설문지 자체도 양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이다. 특히 사전 조사에서 이미 자유기입형 문항들을 주로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설문 조사에서도 자유기입형 문항들을 일부 둔 이유는 사전 조사에서 누락된 요소나 속성, 오류 등이 있는지를 본 조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쓰기 전략의 유형이나 성향이 단순 분류 작업을 통해 규명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계적 혼합 분석의 방식이 더욱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설문 조사는 서울과 경기 소재 네 개 대학교 재학생 총 151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 조사 대상으로는, 공통필수로서의 대학 국어 혹은 대학 글쓰기 관련 강좌를 수강한 경험이 있지만 별도의 글쓰기 관련 특별 강좌를 수강한 경험은 없는 학생일 것을 조건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결과를 대학의 교양 글쓰기 과목의 효과에 대한 간접적인 판단 근거로 삼을 수도 있으리라고 보았다. 즉, 이러한 조건은 정규 학교 교육 및 대학의 교양 글쓰기 과목이 해당 학생들의 쓰기 전략 유형 및 쓰기 과정에 대한 인식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변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학생들의 전공 영역에 따라 글쓰기의 장르적 특성 및 그에 따른 글쓰기 전략 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상 선정은 인문사범계 학생들로 한정하였다.

한편, 글쓰기 전략의 유형은 개인 간 차이뿐만 아니라 개인 내 차이도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했다. 쓰기 상황, 과제, 장르 등의 여건에 따른 차이가 개인 간 차이보다 더욱 클 수도 있기에, 쓰기 전략 유형을 선택하기 위한 조건을 ‘과제 상황 등 글을 잘 써야 하

는 상황이며, 독자들을 설득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경우'로 한정 지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제한을 둔 상황에서도 어느 하나의 유형으로 특정 짓기 어려운 경우라고 답한 학생들은 대상 선정에서 제외되어야 했다. 이에 따라, 글쓰기 교육 경험과 전공 영역 조건을 충족시킨 151명의 대학생들 중에서 유형 특정이 어렵다고 답한 경우, 그리고 설문 조사 결과 결측치가 나타난 경우를 모두 제외한 134명의 설문 조사 결과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아울러, 이들 134명의 최종 분석 대상 중에서 9명의 대학생들을 별도로 표집하여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질적 자료를 더욱 보강 수집하였다.

2.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본 조사의 자료 수집은 설문지와 인터뷰의 두 차원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설문지의 경우,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초 습관 항목, 계획 항목, 본문 진행 항목, 퇴고 항목의 네 항목으로 문항들을 구성하였다.

<표 1> 설문 문항 설계

항목	문항 내용	척도
기초 습관	성별	명목
	글쓰기 빈도	5점 리커트
	글쓰기 선호도	5점 리커트
계획	사전 계획 유형 (개요/ 메모/ 바로 시작/ 기타)	명목
	개요 중요도 인식	5점 리커트
본문 진행	계획 유형별 본문 진행 양상	선택+서술
	본문 진행 유창성 정도	5점 리커트
퇴고	퇴고 양상과 인식	선택+서술
	퇴고의 역동성 정도	5점 리커트

기초 습관 항목에서는 성별, 글쓰기 빈도, 그리고 글쓰기 선호도를 질문함으로써 이러한 속성들이 글쓰기 전략 유형의 선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계획 항목은 사전 계획 유형과 계획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본문 진행 항목은 각 계획 유형별 본문 진행 양상을 묻는 문항, 그리고 진행의 유창성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퇴고 항목은 퇴고의 양상과 그에 대한 인식을 총체적으로 묻는 문항, 그리고 얼마나 큰 범위에서 퇴고가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³⁾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설문 조사 결과 각 유형별 빈도를 바탕으로 층화표집을 실시하여, 개요 유형 2명, 메모 유형 5명, 바로 시작 유형 2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인터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조화되었는데, 해당 유형 선택에 대한 인식과 정서적 차원, 쓰기 교육 경험과 쓰기 과정 지식의 차원, 그리고 글쓰기 관련 기타 견해가 이에 해당한다.

자료의 분석과 관련하여, 설문 조사 결과 중 명목 및 서열(리커트) 척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들은 양적 통계 분석이 이루어진 데 반해, 사전 조사 내역,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기록하게 한 문항들과 인터뷰 녹취 내역에 대해서는 질적 자료 분석이 이루어졌다. 통계 분석은 SPSS 22.0을 활용하여 빈도 분석, 교차 분석(카이제곱 검정), 회귀분석, 분산분석 등이 실시되었으며, 질적 자료 분석은 ATLAS.ti 7.5를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해석 결과들을 이끌어냈다.

3) 진행 유창성은 본문을 쓸 때 비교적 막힘없이 써내려가는지, 아니면 자주 되돌아가거나 막힘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퇴고 역동성은 글을 고쳐쓸 때 주로 문장 이하의 작은 단위에서만 고치는지, 아니면 전반적, 구조적 문제까지 손보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IV. 결과 및 논의

1. 사전 조사 및 설문지 분석 결과

1) 쓰기 과정 운용 유형의 분류 및 분포

134명의 설문지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로서, 글쓰기 전략 유형의 분포를 다음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 쓰기 과정 운용 유형의 분포

유형	빈도	비율	상세 유형	빈도	비율
개요 유형	28	20.9 %	상세 구조화 유형	19	142 %
			유사 구조화 유형	8	60 %
			기타 유형	1	0.7 %
메모 유형	84	62.7 %	자유 메모 유형	32	23.9 %
			메모 후 구조화 유형	50	37.3 %
			기타 유형	2	1.5 %
바로 시작 유형	22	16.4 %	내적 구조화 유형	2	1.5 %
			일필휘지 유형	15	11.2 %
			시작 후 구조화 유형	5	3.7 %

134명 중 개요 유형은 28명(20.9%), 메모 유형은 84명(62.7%), 바로 시작 유형은 22명(16.4%)이었다. 그러나 사전 조사 및 설문지의 질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세 유형으로의 단순 구별만으로 글쓰기 전략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개요 유형과 메모 유형의 가장 큰 차이가 ‘구조화 시도’에 있다는 점, 사전 계획으로서의 개요가 늘 본문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 사전 계획 없이 바로 본문을 시작하는 유형들이라고 해서 구조화 시도가 전혀

없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유형들을 하위 유형으로 구별하고, 하위 유형들 간의 관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표 2>의 우측 내용들은 바로 이러한 각 유형별 하위 유형들을 질적 분석을 통해 판별하고 그 분포를 밝힌 것이다. 설문 조사 당시, 해당 유형 내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쓰기 과정을 운용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부가 질문이 주어졌다. 이에 대한 답변들을 분석한 결과, 각 유형별로 둘 혹은 셋의 하위 유형들로 분류할 수 있었다.⁴⁾

개요 유형은 크게 두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 상세 구조화 유형은 개요를 비교적 상세히 작성하며 일종의 계층적 구조를 형성하는 경우를, 유사 구조화 유형은 글 전체의 구조를 엄두에 두고 있기는 하나 각 요소들 간의 계층적 관계까지 생각하지는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메모 유형 역시 두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자유 메모 유형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대로 자유로이 기입해두는 경우를, 메모 후 구조화 유형은 먼저 아이디어들을 자유로이 떠올린 후 관련지을 수 있는 것들끼리 묶어서 부분적으로 글의 구조화 토대를 마련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바로 시작 유형은 세 하위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내적 구조화 유형은 비록 명시적인 사전 계획 활동을 거치지 않지만 사고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구조화를 진행시킨 이후에 본문을 그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필휘지 유형은 사전 계획 활동도, 구조화 과정도

4) 실제 설문 조사에서는 제시된 하위 유형 외에 '기타' 항목을 포함시켜서 자유 기입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분석 시에는 기타에 자유로이 기입된 내용이 구성된 하위 유형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하위 유형으로 귀속시켰다. 그 결과, 바로 시작 유형은 모두 기존 하위 유형으로 귀속될 수 있었으나, 개요 유형에서 1명, 메모 유형에서 2명의 답변이 기타 유형으로 남게 되었다.

없이 일단 쓰기 시작하고 보는 유형이며 ‘손끝에서 흘러나오는’ 감각에 의존하여 글을 써나가는 경우이다. 시작 후 구조화 유형은 사전 계획 활동 없이 일단 본문부터 쓰기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쓴 후에 다시 전체적인 내용들을 구상하며 내적 구조화 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다시 쓰기 시작하거나, 심지어 명시적인 개요를 작성하기도 하는 유형이다. 후자의 유형은 겉보기에는 개요 유형과 유사해 보일지 모르나, 전략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개요 유형은 사전 계획하기 활동의 결과물로서 개요를 생성해내는 것인 데 반해, 시작 후 구조화 유형은 본문 생산의 결과물로서 개요를 생성해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2>의 하위 유형 분포 내역이 주로 계획하기 과정 자체의 양상과 관련된 분포라면, <표 3>의 분포 내역은 사전 계획의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에 따른 하위 유형 구분을 보여준다.

<표 3> 사전 계획 결과물의 활용에 따른 하위유형 분포

개요 유형	빈도	비율	메모 유형	빈도	비율
개요 고정 유형	8	60 %	메모 반영 유형	18	134 %
개요 변경 유형	16	119 %	메모 변경 유형	63	470 %
개요 무시 유형	4	30 %	메모 무시 유형	1	07 %
			기타 (메모+개요)	2	15 %

사전 계획 결과물을 본문 생산 시 어떻게 활용하였는가와 관련하여, 개요 유형은 세 하위 유형으로, 메모 유형은 네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먼저, 개요 유형의 하위 유형 중에서 개요 고정 유형은 일단 개요를 만든 이후에는 개요를 충실히 반영하며 본문을 써나가는 경우를 말하며, 개요 변경 유형은 본문을 써나가는 중 개요를

변경하는 때가 많은 경우를, 그리고 개요 무시 유형은 일단 본문을 쓰기 시작하면 개요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거나 개요와 완전히 다르게 쓸 때가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메모 유형 중에서 메모 반영 유형은, 메모의 성격상 개요처럼 구조의 성격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해당 내용들이 충실히 본문에 반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에 반해, 메모 변경 유형은 작성해 놓은 메모 내용 자체를 본문 생산 도중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일이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 메모 무시 유형은 사전 계획 결과물인 메모 내용과 본문의 내용이 많이 다른 경우이다. 분석 초기에는 메모 유형을 세 하위 유형으로 구별하였으나, 본 설문 조사의 기타 항목에 적어준 두 명의 대답이 공교롭게도 모두 ‘메모 내용을 바탕으로 별도의 개요를 다시 만든 후 본문을 쓰기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이를 또 하나의 하위 유형으로 추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이 글쓰기 전략 유형 및 하위 유형들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을 결론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대학생 필자들의 글쓰기 전략 유형은 크게 개요 유형, 메모 유형, 바로 시작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구조화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사전 계획과 본문 생산이 어떻게 연계되는지, 구조화가 명시적 혹은 암시적으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따라 하위 유형을 나누어 이들의 글쓰기 전략을 더욱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었다.

둘째, 사전 계획의 결과물을 이후 본문 생산의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느냐의 문제는 기존의 개요 혹은 사전 계획하기 연구들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문제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또한 이 문제는 사전 계획으로부터 본문 생산의 단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단서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

2) 성별, 쓰기 빈도, 선호도와 글쓰기 전략 유형의 관계

글쓰기 전략이 다양한 방식으로 유형화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기초 습관 항목으로 작성하게 한, 성별, 쓰기 빈도, 쓰기 선호도 등의 내역이 유형의 선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들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통해, 쓰기 전략 유형이 특정 요인들에 의한 부가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립적인 선택이 될 수 있음을 판단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표 4>는 성별 요인이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려주는 교차 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의 결과이다.

<표 4> 쓰기 과정 운용 유형과 성별 교차표, 카이제곱 검정

구분			성별		χ^2 / p
			여자	남자	
유형	개요 유형	빈도(%)	19 (67.9%)	9 (32.1%)	0.963 / 0.618
		기대빈도	17.6	10.4	
	메모 유형	빈도(%)	50 (59.5%)	34 (40.5%)	
		기대빈도	52.7	31.3	
	바로 시작 유형	빈도(%)	15 (68.2%)	7 (31.8%)	
		기대빈도	13.8	8.2	
계			62.7%	37.3%	

필자의 성별과 글쓰기 전략 유형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제곱 분석을 실시한 결과, χ^2 값이 0.963일 때 유의확률이 0.618로 나타나, 성별에 따라 유형 선택에 차이가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로, 기대빈도가 5보다 작은 셀은 하나도 없었으며 최소 기대빈도는 8.21이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성별과 달리, 쓰기 빈도와 쓰기 선호도는 모두 리커트 척도에 의한 조사 결과⁵⁾이므로, 명목 척도인 글쓰기 전략 유형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양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먼저 개요 유형, 메모 유형, 바로 시작 유형이 쓰기 빈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한 결과, 각각 t 값이 0.315($p=0.751$), 0.412($p=0.681$), 0.382($p=0.703$)이므로 세 유형 모두 쓰기 빈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쓰기 선호도의 경우에도 세 유형으로부터의 영향 관계를 파악해 보면, 각각 t 값이 0.241($p=0.793$), 0.070($p=0.944$), 0.330($p=0.742$)이므로 세 유형 모두 쓰기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별, 쓰기 빈도, 쓰기 선호도는 모두 글쓰기 전략 유형의 선택과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본 조사 대상의 성별 불균형이 분석 결과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도 더욱 의미가 있다. 즉, 본 설문 조사는 여자 대학생 84명, 남자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 요인이 아니므로 나머지 연구 결과의 해석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쓰기 능력 신장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인, 쓰기 빈도나 쓰기 선호도의 항목도 유형의 선택과는 뚜렷한 영향 관계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쓰기 전략 유형이 미숙함이나 능숙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선택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5) 쓰기 빈도는 한 달을 기준으로 20회 이상을 '매우 높다'로, 1회 이하를 '매우 낮다'로 설정하였으며 나머지는 5점 등간 척도로 구성하였다. 쓰기 선호도는 '매우 좋아한다'부터 '매우 싫어한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3) 본문 진행, 퇴고의 양상과 글쓰기 전략 유형의 관계

글쓰기 전략 유형은 기본적으로 사전 계획의 양상에 따라 나눈 것이기는 하나, 이것이 향후 본문 진행 혹은 퇴고 과정의 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요를 짜서 글을 쓰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본문의 진행 양상이나 퇴고가 그에 따라 달라진다면 글쓰기 전략들 사이에 질적 차등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명목 척도인 세 가지 쓰기 유형이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본문 진행 유창성과 퇴고 역동성 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활용하였다.

<표 5> 쓰기 과정 운용 유형과 본문 진행, 퇴고 양상 관계 분산분석 결과

종속변수	유형	평균	표준편차	F값/ 유의확률
본문 진행 유창성	개요(a)	2.75	.752	0.950/ 0.390
	메모(b)	2.57	.765	
	바로 시작(c)	2.45	.858	
퇴고 역동성	개요(a)	2.64	.488	0.248/ 0.780
	메모(b)	2.74	.679	
	바로 시작(c)	2.73	.550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본문 진행 유창성의 경우 F값이 0.950일 때 유의확률이 0.390, 퇴고 역동성은 F값이 0.248일 때 유의확률이 0.780이므로, 두 요인은 모두 글쓰기 전략 유형에 따른 평균값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즉, 필자가 사전 계획 활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것이 본문 진행을 유창하게 이끌어 가거나 그만큼 퇴고를 적게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지 않는

는다는 뜻이다. 사전계획과 관련된 전략 유형보다는 필자의 개인적 성향이나 성격, 글쓰기 능숙도 등의 요인이 훨씬 더 큰 영향 요인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므로 이 결과 역시, 본문 진행이나 퇴고에 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글쓰기 전략 유형의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2. 인터뷰 분석 결과

1) 쓰기 과정 운용의 양상과 그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글쓰기 전략 유형의 선택이 성별, 쓰기 빈도, 쓰기 선호도, 본문 진행 유창성, 퇴고 역동성 등과 별개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러한 선택이 위 열거된 항목들과 유의미한 관련이 없음을 알아보았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질적 분석을 통해 실제로 필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선택과 관련하여 어떠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직접 알아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조사에서는 반구조화된 인터뷰를 통해 설문 조사로는 판단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쓰기 과정 운용 양상들을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데 더욱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참여자들 중 층화표집으로 선정된 9명의 대학생들의 인터뷰에서 쓰기 과정 양상과 관련된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쓰기 과정 운용 양상 및 인식

참여자		쓰기 과정 운용 방식	전략에 대한 선호도	효과에 대한 만족도	이상적인 필자의 요건
개요	A	상제 구조화-개요 고정/반영-진행(중)-퇴고(약)	상	상	다독, 고민
	B	유사 구조화-개요 고정/반영-진행(중)-퇴고(중)	중	하	개요를 잘 만들 것
메모	C	메모 후 구조화-메모 반영-진행(강)-퇴고(중)	상	상	많이 생각할 것
	D	메모 후 구조화-메모 변경-진행(중)-퇴고(중)	상	상	개요 짜기, 퇴고
	E	메모 후 구조화-메모 변경-진행(약)-퇴고(강)	중	하	다독, 일관성
	F	자유 메모-메모 변경-진행(중)-퇴고(강)	상	하	계획, 퇴고
	G	자유 메모-메모 무시-진행(강)-퇴고(약)	중	중	계획 잘 세우기
바로 시작	H	시작 후 구조화-진행(중)-퇴고(중)	상	상	여러 번 퇴고
	I	일괄취지-진행(강)-퇴고(중)	중	하	치밀한 계획, 다독

<표 6>에서 ‘쓰기 과정 운용 방식’은 설문 내용 및 이들이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쓰기 과정 양상이다. ‘전략에 대한 선호도’는 이들이 선택한 운용 방식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 얼마나 편리함을 느끼는지 등과 관련된다. 반면, ‘효과에 대한 만족도’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이었다고 판단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9명의 학생들은 모두 각기 다른 쓰기 과정 운용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A가 가장 극단적으로 계획 위주의 쓰기 과정을 운용하였다면, I는 가장 극단적으로 자

신의 직관에만 의존하여 글을 썼다. 나머지는 대체로 알파벳순에 따라 점진적인 차이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전략에 대한 선호도와 효과에 대한 만족도 차원으로 나누어 질문한 이유는, 학생들의 인식에 잠재되어 있는 모순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즉, 필자들은 반드시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선호하는 것만은 아니었다. 예컨대, F의 경우 선호도는 높고 만족도는 낮았는데,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F가 “개요 짜기가 귀찮고 막상 짜봤자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사실 글을 잘 쓰려면 개요를 짜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던 데서 찾을 수 있다. 즉, F는 글을 제대로 잘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요를 먼저 작성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 글을 쓸 때에는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제대로 하는 과정은 아닌 것 같지만’ 잠정적으로나마 절충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

실제 활용 전략과 이상적인 전략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F 이외에도 B, E, I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본인의 운용 방식과 판이하게 다른 쓰기 과정을 이상적인 쓰기 과정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B, F, I는 모두 개요를 기반으로 하는 쓰기 과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으면서도, 막상 개요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은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라는 모순과 함께, 이상 자체에 대해서도 결론 나지 않은 회의를 품고 있는 셈이다. 토랜스 외(Torrance et al., 1996), 키프트 외(Kieft et al., 2007) 등에서 이미 개요 작성만이 능사가 아니며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개요의 효용성에 대해 막연한 의심을 품고 있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의심을 품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가장 이상적인 쓰기 과정은 개요를

작성하는 쓰기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이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개요 유형 중에 비-개요 유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는 없지만, 비-개요 유형으로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를 보이는 필자들은 대체로 개요 유형을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학생들의 쓰기 교육 경험과 쓰기 지식에 대한 별도의 분석을 통해 좀 더 심층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쓰기 교육 경험 및 쓰기 지식의 영향

<표 7>은 9명의 인터뷰 내역 중에서 쓰기 교육 경험과 쓰기 지식에 관련된 답변들을 바탕으로 질적 자료 분석을 시도한 결과이다.

<표 7> 쓰기 교육 경험과 쓰기 지식의 양상

참여자	학교교육에서 학습한 쓰기 과정의 지식	대학 글쓰기에서 학습한 쓰기 과정의 지식	쓰기 과정 지식의 효용성
개요	A 개요—표현—퇴고	계획하기, 준비 많이 하기	도움 많이 됨
	B 기억 안 남	개요 작성	잘 모르겠음
메모	C 기억 안 남	기억 안 남	잘 모르겠음
	D 개요—표현—퇴고	개요 작성	약간 도움 됨
	E 계획하기 활동	계획하기	약간 도움 됨
	F 계획하기 활동	개요—표현—퇴고	약간 도움 됨
	G 기억 안 남	계획하기	잘 모르겠음
바로 시작	H 개요—표현—퇴고	개요, 퇴고	잘 모르겠음
	I 기억 안 남	개요—표현—퇴고	잘 모르겠음

<표 7>에 따르면, 학교 교육에서건,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건, 계

획하기, 혹은 개요 작성하기와 관련된 지식이 쓰기 과정과 관련하여 학생들이 학습하였던 지식 중 대다수를 차지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중 다섯 명은 단순히 개요 작성이 필요하다는 수준을 넘어 서서 ‘개요를 작성하고 본문을 쓴 후 퇴고한다’는 식으로, 그 순서와 단계를 명료하게 규정짓고 있었다. 즉, 쓰기 과정에 일정한 절차가 존재하며 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이들은 개요를 작성해야 한다거나 계획하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등의 원론적인 이야기 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쓰기 과정 지식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9명 중에서 5명이나 잘 모르겠다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 것도 바로 이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 우선, 학교 교육은 물론 기존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도, 쓰기 과정을 이끌어가는 전략과 관련하여 지나치게 일률적인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대학 글쓰기 강의에서 활용하는 주요 글쓰기 교재들에서 다양한 전략들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적어도 쓰기 과정 운용 전략으로서 ‘내용 생성하기—개요 짜기—표현하기—고쳐쓰기’의 단일 체제만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다. D나 F, H처럼 일부 학생들은 본인의 쓰기 경험을 통해 얻은 직관을 바탕으로,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전략을 개발해 내기도 하였으나, F가 토로하였던 것처럼 본인의 쓰기 전략이 ‘잘못된’ 것이고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방식이라고 느끼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다양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진취적으로 노력하기보다는, 도리어 쓰기 효능감을 떨어뜨리기만 할 뿐이다. 쓰기 과정에 대한 고정관념과 본인의 전략 선택에 대한 모순

적 인식이 여러 학생들에게서 관찰된 것은, 결국 기존의 쓰기 교육에서 비롯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쓰기 과정 운용의 전략을 제시할 때, ‘내용 생성하기—개요 짜기—표현하기—고쳐쓰기’의 각 단계별 적용 전략들만을 고려하기보다는, 해당 단계들이 고정된 절차가 아니라 얼마든지 ‘전략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열어둘 필요가 있다. 물론 개요-변경, 시작 후 구조화 등의 하위 유형들을 통해 몇몇 학생들은 이미 그러한 전략들을 몸소 체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자신의 전략에 대해 혼란과 모순, 부정적 편견 등의 부적절한 인식을 보이는 경우도 꽤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적절한 전략들을 다양하게 이끌어 내는 것을 독려하는 지도의 관점이 필요하다.

V. 결론

이 연구에서 대학생 필자들의 글쓰기 전략 유형 선택과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관련하여 요약적으로 결론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첫째, 대학생 필자들의 쓰기 전략 유형의 선택은 대체로 개요 유형과 메모 유형, 바로 시작의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개요 유형은 전체 글의 내용에 대한 구조적 축약을 본문 생산 이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유형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 메모 유형은 본문 생산 이전에 미리 사전 계획하기 활동을 통해 내용을 생성하기는 하나 그것이 전체 글에 대한 구조적 축약의 형태는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 한편, 바로 시작 유형은 특별한 사전 계획하기 활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본문 생산을 시작하는 유형을 의미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쓰기 과정의 유형을 단지 이 세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쓰기 전략의 적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 유형별 하위 유형들을 세분화하였다. 특히 단지 계획하기 양상 자체에 대한 하위 유형 세분화를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계획의 결과물을 이후 본문 생산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바탕으로 세분화 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글쓰기 전략 유형의 선택은 능숙함과 미숙함,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의 이분법적인 기준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순수한 의미의 선택이 될 수 있다. 그 근거로서, 전략 유형의 선택이 성별, 쓰기 빈도, 쓰기 선호도, 본문 진행의 유창성, 퇴고의 역동성 등과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 통계적으로 밝혔으며, 그 결과 이중 어떠한 것과도 유의미한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실제 글쓰기 전략 유형이 비교적 다양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기 과정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 필자들이 이에 대해 모순되거나 혼란스러운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이들은 본인에게 맞는 방식의 전략을 개발하는 데 더욱 힘쓰기보다는,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글을 쓰게 되었다. 이렇듯 학생들이 자신의 전략에 대해 필요 이상으로 불신하는 일은 글쓰기 효능감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는 쓰기 교육 방안은 쓰기 과정 운용 양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해당 유형 내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모든 종류의 쓰기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서로 다른 몇 가지 유

효한 전략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전략의 선택은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쓰기 전략과 관련된 글쓰기 지도는 이러한 판단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 문헌

- 김정자(2012), 「교사의 필자 정체성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4, 국어교육학회, pp.111-140.
- 김지연(2013), 「블로그 필자들의 인터넷 작문 양상」, 『작문연구』 19, 한국작문학회, pp.69-100.
- 박수자(2007), 「생애 필자를 육성하는 쓰기 학습 자원의 개발」, 『국어교육학연구』 30, 국어교육학회, pp.261-290.
- 양경희·이삼형(2011),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에 대한 교육적 이해」,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pp.407-435.
- 이재승(2007), 「과정 중심 글쓰기 교육의 허점과 보완」, 『한국초등국어교육』 33,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pp.143-168.
- 이재승(2010), 「작문 이론의 변화와 작문교육에서의 수용」, 『국어교육』 131, 한국국어교육학회, pp.499-521.
- 정현선(2013), 「SNS의 언어 현상과 소통 공간에 관한 국어교육적 고찰」, 『국어교육』 142, 한국국어교육학회, pp.79-114.
- 정희모(2011), 「대학생 쓰기 교육을 위한 텍스트 특성 비교—대학생 필자와 전문 필자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5, 한국국어교육학회, pp.267-303.
- 정희모(2013), 「작문 연구의 방향과 전망—대학 작문에서 인지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 『작문연구』 18, 한국작문학회, pp.9-34.

* 이 논문은 2015. 5. 11. 투고되었으며, 2015. 5. 18. 심사가 시작되어 2015. 6. 13. 심사가 완료되었고, 2015. 6. 15. 편집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재가 확정되었음.

- 정희모·김성희(2008), 『대학생 글쓰기의 텍스트 비교 분석 연구: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의 텍스트에 나타난 특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32, 국어교육학회, pp.393-426.
- Bereiter, C., & Scardamalia, M.(1987), *The psychology of written compos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Flower, L.(1985), *Problem-solving strategies for writing*, Heinle & Heinle Publishers, 원진숙·황정현 역(1998), 『글쓰기의 문제해결전략』, 서울: 동문선.
- Hayes, J. R., & Flower, L. S.(1980), *Identifying the organization of writing process*, In L. W. Gregg & E. R. Steinberg (eds.), *Cognitive processes in writ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ayes, J. R., & Nash, J. G.(1996), *On the nature of planning in writing*, In C. M. Levy & S. Ransdell (eds.),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Kieft, M., Rijlaarsdam, G., Galbraith, D., & van den Bergh, H.(2007), “The effects of adapting a writing course to students’ writing strategie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7(3), pp.565-578.
- Myhill, D.(2009), “Children’s patterns of composition and their reflections on their composing processes”,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35(1), pp.47-64.
- North, S. M.(1987), *The making of knowledge in composition*, Portsmouth, NH: Heinemann.
- Pritchard, R. J., & Honeycutt, R. L.(2006), *The process approach to writing instruction: Examining its effectiveness*, In C. A. MacArthur, S. Graham, & J. Fitzgerald (eds.), *Handbook of writing resear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Smit, D. W.(2004), *The end of composition studies*, Carbondale, IL: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 Torrance, M., Thomas, G. V., & Robinson, E. J.(1996), *Finding something to*

- write about: Strategic and automatic processes in idea generation*, In C. M. Levy & S. Ransdell (eds.), *The Science of Writing: Theories, Method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Torrance, M., Thomas, G. V., & Robinson, E. J.(1999),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writing behaviour of undergraduate students",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9(2), pp.189-199.
- van den Bergh, H., & Rijlaarsdam, G.(2007), *The dynamics of idea generation during writing: An online study*, In M. Torrance, L. V. Waes, & D. Galbraith (eds.), *Writing and cognition: Research and applications*, Amsterdam, The Netherlands: Elsevier.
- Van der Hoeven, J.(1999), *Differences in writing performance: Generating as indicator*, In M. Torrance, & D. Galbraith (eds.), *Knowing what to write: Conceptual processes in text production*, Amsterdam, The Netherlands: Amsterdam University Press.
- White, M. J., & Bruning, R.(2005), "Implicit writing beliefs and their relation to writing quality",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0(2), pp.166-189.

■ 국문초록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전략 유형과 인식 조사

김혜연

이 연구는 대학생 필자의 글쓰기 전략 유형 및 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통해 전략 중심 작문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과 경기 소재의 대학교의 학생 151명의 설문 조사 및 층화표집 대상 9명의 인터뷰 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질적 양적 혼합 분석 방법에 의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대학생 필자들의 글쓰기 전략 유형 선택과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첫째, 계획하기와 관련된 대학생 필자들의 전략은 대체로 개요 유형과 메모 유형, 바로 시작의 세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쓰기 전략의 운용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유형별 하위 유형들을 세분화하였다. 둘째, 글쓰기 전략 유형은 능숙함과 미숙함, 바람직함과 그렇지 못함의 이분법적인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고보다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일종의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글쓰기 전략 유형들이 실제로는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생 필자들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 상반되거나 모순된 인식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모순 때문에 이들은 본인이 잘못된 쓰기 과정을 운용하고 있다고 자책하거나 쓰기 과정에 대해 고정관념을 지니는 등의 문제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 필자를 위한 쓰기 교육 방안은 쓰기 과정 운용 전략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해당 유형 내에서 어떠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대학 글쓰기, 대학생 필자, 쓰기 전략, 쓰기 과정, 계획하기, 고쳐쓰기, 개요

■ Abstract

Types of Undergraduate Writing Strategies and Student Awareness of performance

Kim, Hyeyoun

This study examines different types of undergraduate writing strategies and students' awareness of writing performance, and aims to establish the fundamentals of strategy-centered writing education. Using stratified sampling,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134 undergraduate students and interviews were held of nine students.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ere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writing type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outline types, memo types, and direct types. These groups were then categorized into subtypes to grasp students' concrete and authentic strategies. Second, a writing type would not be decided based on the dichotomous norm of competent/immature or desirable/undesirable; rather, it was assumed to be a choice for discovering more appropriate ways of writing. Third, despite the variety of types across writing strategies, a number of students recognized their own writing types as ineffective or wrong. This awareness may cause a decline in writing efficacy and would not be helpful for developing better strategies proper to their disposition. Therefore, writing education for undergraduate students should acknowledge a variety of writing strategies and allow students to make breakthroughs within their own types of strategies.

[Key words] College writing, Writing types, Writing strategy, Writing processes, Writing performance, Planning